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자신이 '독충'으로 변한다면...끔직하죠!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대화를 하다가 말이 막히거나 이름 등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둘러대는 말이 있죠? 여러분도 '거시기'라는 말 자주 들으실 겁니다.

거우다: 사람이나 동물을 건드리어 성나게 하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을 설편리 거우어 일이 없도록 조심합시다."

거저: 치르는 값이나 조건이 없이. 힘들임 없이. 무료로. "이 물건은 네가 거저 가져가라."

거털: 겉으로 드러난 태도 "사람을 볼 때는 거털만 보지 마라."

걸개그림: 건물의 내벽이나 외벽에 걸 수 있도록 만든 그림. 이런 그림은 한때 대학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지요.

고지말래야: 호박, 가지, 고구마, 무를 가늘고 길게 납작 썰어 말린 것.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카프카 '변신'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나서 필자가 쓴 '뽕이 뽕'이란 시의 첫 연을 먼저 소개할게요.

오! 그레고르여, 지금 그대의 꽃내 나뉜 前生을 시퍼렇게 이글거리는 화덕 불에 내맡기고 기억의 불꽃 출렁이는 불바다에서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몸을 뒤척이고 있군요 열기가 더할수록 자꾸 부풀어 오르는 말의 외로움, 한번 의식을 잃으면 돌아올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영영 빠져들 것 같아 팽팽하여 오히려 불안한 공기 속에서도 자꾸만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그대

독자인 그레고르는 5년 전에 파산한 일가의 생계를 떠맡는다. 양친의 빚을 갚기 위하여 속으로는 혐오하면서도 웃감의 외판원으로서 1년 내내 시간에 쫓기면서 바쁜 나날을 보낸다. 그가 매월 가지고 오는 돈은 약간의 자기 용돈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족에게 내준다. 그는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는 누이동생을 음악학교에 넣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 보니 자신이 한 마리의 거대한 독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기 일꾼을 잃은 일가에서는 아버지가 초라한 차림으로 직장으로 나가고 어린 누이동생도 일터로 나갔다.

한 방에 감금되어 있던 그가 어느 날 어머니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실신하고 만다. 아버지가 된 진 사과가 그의 등에 박혀 증상을 입는다. 가족들은 그를 내쫓으려고 든다. 부상이 악화되고 자신이 죽어야 하겠다는 각오 아래 그는 조용히 죽어간다.

그의 죽음을 안 가족들은 그때서야 안심하여 서로 손을 맞잡고 오래간만에 들놀이를 나간다. 양친은 성숙한 딸을 쳐다보며 사뭇감 고를 걱정한다.

소외가 '보편화'된 현대사회 비판

되돌아 보는 삶의 중요성 일깨워

그레고르의 영혼은 환경에 매도당하고 회사나 가정의 틀너바퀴 아래 짓눌려 있었어요. 꿈결 속에서 돌아온 영혼, 본래의 자기 자신은 자기와 가족의 생활을 위협하는 독충 바로 그것인 거예요. 여기에 카프카의 새로움이 있지요.

이 소설은 자기 소외가 '보편화' 되어버린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독충이 되어 파멸하는 자가 실은 자기의 본심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의식하는 자가 구제될 수 있는 것이지요. 소위 죄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현세의 온갖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소설의 비극성은 그레고르가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 따라서 구제될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요. 자기 본래의 모습, 그것이 어디까지나 독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적인 소설과 전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현대의 공포와 심연이 있는 것이라고 할까요?

카프카는 자기 본래의 영혼을 외부세계에 매도해 버린 현대인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웁니다.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을 매도해 버린 편이 오히려 건전하게 보이는 현대적 생활에서 그의 관심은 출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해 버린다면?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거나 죽이려고 한다는 상상! 어떨까요?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다른 존재로의 '변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 가정을 통한 자기 점검의 기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서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레고르는 그러한 인간 사회의 심층을 '변신'을 통해 들여다보게 하는 안내자인 셈이에요. 그의 변신은 일상을 들여다보는 보다 적극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변신을 꿈꾸시나요?

인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계사편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감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육 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 rolling@paran.com)

친구들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한창 공부해야 할 고2인데, 친구들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예전에는 너무 친해서 선생님님이 떨어뜨려놓을 정도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애들이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ID:답답해)

상처 될 언행 한 적 없나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잘 안겠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도 내가 과연 그 입장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같네요. 처음에 친구들이 저에게 대했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지냈었는데. 그래도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는 마음과 살아야 하는 마음, 조금은 두렵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2학년이 시작했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점점한 마음으로 계속 있으면 친구 마음도 불편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한 번 곰곰이 한 번 생각해봐요. 사람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기도 하는 존재랍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가 될 언행을 한 적이 없는지 잘 생각해봐요. 그런 일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좋아요. 혹시 생각하는 것이 없다면 너무 혼자 속을 끓이기보다는 친구 중 한 명에게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친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 친구에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화해하고 싶다면 솔직하게 털어 놓는 것은요? 자신의 심정과 지금의 느낌과 상태에 대해서 블로그와 미니홈피를 통해 방명록이나 쪽지를 보내 보세요. 예전에는 선생님께서 억지로 떨어뜨려 놔다고 할 정도로 물어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먼저 한 번 용기를 내어 보지 않으시겠어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세계)



Advertisement for '새는 지붕' (Birds on the Roof)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house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construction and interior design.

Advertisement for '대방민국의최초' (First of the Great Republic) featuring a traditional Korean pavilion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construction and interior design.

Advertisement for '해동불교미술원' (Haedong Buddhist Art Museum) featuring a large Buddhist painting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art exhibitions and education.

Advertisement for '신비의 인도산 자수정' (Mystery of Indian Garnet) featuring a necklace and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jewelry and health products.